

# 미국, 선박폐유 투기업체에 1,050만 달러 벌금

## 홍콩 MSC 선박관리회사, 선박검사 조치도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MSC 선박 관리회사가 미국 사법 당국에 선박에서 해상으로 폐유를 몰래 버린 혐의가 인정되어 1,05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벌금 액수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일어난 선박 폐유의 해상투기와 관련된 환경오염 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MSC는 이 벌금과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미국 정부가 승인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계획에는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선박 가운데 미국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 81척에 대해 독립적인 선박 감사관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엄격

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법무부와 연안경비대에 따르면, MSC사의 엘리나(Elena)호는 지난 5월 16일 보스톤 항만에 입항한 이후 선박 폐유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선박에 몰래 설치한 것이 적발되어 기소됐다.

심문과정에서 홍콩에 있는 관리회사의 고위 임원이 엘리나호의 선박 승무원에게 연안경비대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 선박의 일등기관사는 폐유 처리 장부를 인멸하거나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이 선박이 2004년부터 적발될 때까지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이른바 매직파이프를 통해 적어도 40톤이 넘는 선박 슬러지를 바다에 무단으로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 중국 국영조선소 선박인도량, 전세계의 7% 차지 CSSC 금년 신조선 인도량 500만DWT에 달해

중국의 대규모 국영조선업체인 CSSC(China State Shipbuilding Corp)의 금년 선박 인도량이 500만DWT로 전세계 선박 인도량 가운데 7%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같은 물량은 지난해 이 조선소의 인도량 357만 DWT에 비해 40%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 CSSC는 상하이와 중국 남부 지역의 조선소를 관할하고 있는데, 이 조선소들의 총 수주량은 1,600만DWT에 달하고 있다.

특히, CSSC가 인도한 선박 가운데 약 200만DWT는 상하이 외교 조선소에서 건조한 것으로, 주로 17만 5,000~17만7,000DWT급 케이즈사이즈 선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기업은 2007년부터 아프리카급 석유제품선, VLCC급 유조선, 그리고 컨테이너선으로 건조 선박을 다양화할 계획이며, 조선소의 구조조정을 빠르게 단행해 선박 장비업 등으로 사업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CSSC의 탄 조우준(Tan Zoujun) 부사장이 밝혔다.

특히, 이 회사는 2007년까지 상하이 창싱 섬(Changxing Island)에 지안난(Jiangnan) 조선소를 신설할 계획이다.